

부 고

메리 주딘 MARY JUDEANN 수녀

ND 5761

레아 메리 류킨 Rhea Mary LUEKEN

미국,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



출 생	1942 년 9 월 16 일	OH, 신시내티
서 원	1962 년 8 월 14 일	KY, 커빙턴
사 망	2023 년 11 월 5 일	KY, 커빙턴
매 장	2023 년 11 월 10 일	KY, 커빙턴

레아 메리 류킨은 헬렌과 페르디난드 류킨의 사랑의 가정에서 네째이자 막내로 태어났다. 레아는 노틀담 수녀들을 알게 된 오하이오 체비엇의 성 마틴 학교에 다녔다.

레아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드리라는 부르심을 느껴, 8 학년을 끝내고 노틀담 아카데미에 다니며 아스피란티 되었다. 1960 년 2 월 2 일에 입회하여 1962 년에 첫서원을 했으며, 콜드 스프링 성 요셉과 커빙턴 성 어거스틴 학교에서 초등부를 가르치도록 파견받았다. 1967 년 종신서원 이후, 메리 주딘 수녀는 렉싱턴 테크니컬 인스티튜트와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간호 교육을 추구했다.

간호사 자격을 취득하자마자 수녀는 정 간호사로서 3 년간 성 클레어 센터에서, 그리고 나서 간호사 부장으로서 성 찰스 케어 센터에서 일했다. 1977 년, 주딘 수녀는 간호 부장으로서 성 클레어 헬스 케어로 돌아가고, 1998 년까지 환자 서비스 부회장으로서 봉사했다. 이 시간 동안 수녀는 켄터키 대학교에서 간호 행정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. 주딘 수녀는 2015 년에 은퇴할 때 까지 계속해서 보건 분야에서 종사했다.

보건에 더하여 주딘 수녀는 때로 공동체 봉사, 특히 영성 도서관 조직, 일상 우편 분배같은 행정 업무에 관여했다. 2023 년 1 월, 주딘 수녀는 성 찰스 공동체 캠퍼스의 루르드 홀로 이주했다.

카리스마를 살아가는 주딘 수녀의 특별한 방식은 단순함의 열정이었으며, 삶의 중심에 하느님을 두고, 하느님께서 수녀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어 다른 이들이 그분을 보다 더 사랑하도록 이끌 수 있었다. 수녀는 인내와 건강 문제를 절대로 단념하지 않고 “사랑하는 예수님, 매일 한 번씩”이라고 말하며 어려움을 하느님께 바쳤던 태도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. 수녀의 힘은 감동적이었다.

메리 주딘 수녀처럼 매일 한 번씩 예수님께 맡기고 매일 도움을 청하며 살았듯이 생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자. 이제 수녀가 좋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과 평화 안에 감싸여 있기를 빈다.